

# 순천향대·전남대·대전보건대 등 20개교 '글로벌대' 예비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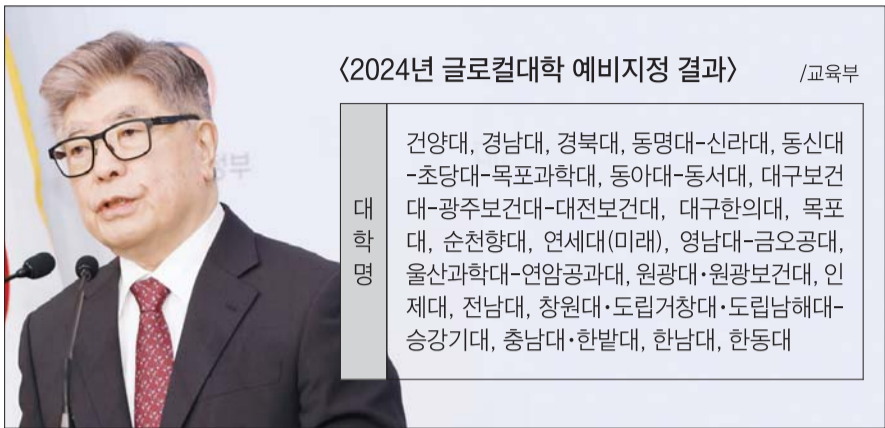
##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

2024년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 연합유형 신설, '초광역' 다수 선발 8월 말 최종 글로벌대 지정 계획

교육부가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33개교의 20개 기획서가 예비 선정됐다. 지난해 예비지정을 통과했다가 본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순천향대와 전남대 등 5곳은 이번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다.

'글로벌(Global+Local, 글로벌대)'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5년간 학교당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 평가와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결과) /교육부  
대학명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도림거창대·도림남해대·승강기대, 충남대·한밭대, 한남대, 한동대

과'를 발표했다.

### ◆ 109개교 65건 선정

올해 평가에서는 기존 단일 대학이 추진하는 '단독' 유형, 복수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유형 외에도 '연합' 유형이 신설됐다. '연합' 유형은 학사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본부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올해 사업에는 '단독' 유형 39개(39개

교), '통합' 유형 6개(14개교), '연합' 유형 20개(56개교) 등 총 109개교가 65개 기획서를 제출했다.

평가 결과 이중 단독 유형에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전남대 ▲한남대 ▲한동대 등 11곳이 선정됐다.

통합 유형에는 3곳이 본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충남대·한밭대 ▲원광대·

원광보건대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3개교 통합 및 한국승강기대와 연합을 구성하는 복합 유형까지 포함해 3곳이다.

신설된 연합 유형은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등 6곳이다.

### ◆ 이주호 장관 "지역·대학 혁신엔진 뒷받침"

이번에 예비지정된 총 20개(33개교) 중 순천향대·연세대(미래)·인제대·전남대·한동대 등 5곳은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2024년에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해 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올해는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등 지난해 예비지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문대학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대구·광주·대전 소재 보건 전문 대학들이 초광역 형태로 연합한 사례다. 초광역 연합 유형에서 선정된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는 물론, 원광대와 통합 유형에 선정된 원광보건대도 전문 대학의 선정 사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글로벌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벌대학을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교육청 전문강사 마약 예방교육

약사·변호사 등 30명 구성

약사와 변호사,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서울 중·고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했다.

전문 강사 30명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반별 마약 예방교육 150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해외진출 스타트업 찾습니다"

서울시 미국 등 16개국 진출 지원 44억 투입... 내달 13일까지 모집

서울시는 올해 44억원을 들여 400여개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16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창업허브공덕을 통해 미국·베트남·인도·중국·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스타트업 43개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와 함께 시는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4개국 5곳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거점'을 미국, 독일을 포함 7곳으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이 진출하려는 현지 시장에서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인공지능(AI)·바이오·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이 가속할 수 있도록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서울핀테크랩에서는 산업 맞춤형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 경기도, '이지투어버스' 확대 운행

야간관광 등 체험형 요소 강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6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이지(EG)투어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 '쉬운 경기도 여행(Easy Gyeonggi-Shuttle)'이라는 의미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투어 연계형 교통수단이다.

올해 이지(EG)투어버스는 총 7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과주노선은 DMZ 체험을 테마로 임진각, 평화공돌라, 캠프그리브스, 통일전망대를 경유한다. ▲수원/용인노선은 한류와 전통문화, 먹거리를 테마로 수원화성과 한국민속촌, 수원 남문시장을 경유한다. ▲포천

노선은 야간/체험형을 테마로 포천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등을 경유한다. ▲부천/김포(파주) 노선은 DMZ와 전통문화, 먹거리를 주제로 김포애기봉, 부천한옥마을, 부천만화박물관, 부천자유시장을 경유한다. ▲이천/용인 노선은 야간/먹거리를 주제로 이진상회, 이천도자기마을, 한국민속촌 등을 경유한다. ▲양평 노선은 먹거리/체험형으로 두물머리, 양수리전통시장, 수미마을 등을 경유한다. ▲가평 노선은 힐링을 주제로 아침고요수목원, 삐뚤피랑스, 이탈리아마을 등을 경유한다.

도는 기존 인기 노선 외에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야간관광과 먹거리, 체험형 요소를 강화했다. 비정기 노선은 지역축제 등 시즌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교육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오는 2026년 서울 용산구에 대학생이 월 15만원으로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거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기숙사로, 여러 대학 학생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시행

내일부터 신청 접수... 시력검사 등 지원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의 시력검사와 안경 구입 비용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프로젝트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인원 제한 없이

서울시에 사는 초등학교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면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시는 휴대전화 문자로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전송한다. 쿠폰은 내달 3일에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6개월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4 | 해질 / 19:09

4월 17일 (수)  
음력 : 3월 9일

수도권 날씨  
10 ~ 23°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7/23, 동두천 8/24, 가평 7/24, 파주 6/23, 서울 10/23, 양평 9/24, 인천 10/19, 수원 10/21, 용인 10/21, 평택 8/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정부 “北 생물학무기 위협 억제 위해 국제사회 긴밀 공조”  
▲ 시진핑, 솔츠와 회담... “변혁 속에 양국 협력 필요” /사진 뉴시스



▲ 日증시, 미·일 장기금리 상승 영향에 급락...닛케이지수 1.94% ↓  
▲ 日도쿄전력, ‘동일본 대지진’ 운전 중단 원전 재가동 준비 /사진 뉴시스

▲ “美, 이스라엘의 이란 직접 타격 낮춰봐...대리 세력 공격할 듯”  
▲ 올해 하계 다보스포럼, 6월 말 中 다롄서 개최